

사설 연방제통일로 민족의 숙원을 하루빨리 풀자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제시하신 때로부터 34년의 년륜이 새겨졌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주제69(1980)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천명하신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은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에게 조국통일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고 전체 조선민족을 통일사업 수행에 힘입게 불러일으키는 위대한 통일강령이며 조국통일의 불멸의 기치이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은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 그 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연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하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다. 외세의 의한 민족분열로 하여 북과 남에서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오래동안 존재해 오고있는 조선반도의 현실에서 어느 한쪽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시하고 체제대결, 체제통일에 매달린다면 불교 대결과 불신을 격화시키고 통일은 언제가도 이룰수 없으며 군사적충돌과 전쟁의 참화까지 초래될수 있다.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통일방안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지향과 북과 남의 실정에 맞게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가장 빨리 해결해나갈수 있

게 하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조국통일방도이다. 통일국가 건설을 위한 실천방도를 밝혀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과 함께 연방국가가 실현하여야 할 10대시정방향을 밝혀주어 우리 겨레는 가장 곧바른 길을 따라 통일에 나아갈수 있는 최확한 지침을 받아안게 되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의 공명정대성과 합리성, 현실성은 실천과정을 통하여 날이 갈수록 확증되고있다.

지난 30여년간 공화국정부는 연방제방식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꾸준하고도 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해외동포들도 연방제 방안을 적극 지지하고 실천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였다. 이 과정에 거족적통일운동조직인 범민련이 결성되고 조국통일운동은 날이 확대 발전하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서서 어버이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과 조국통일 3대원칙,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조국통일 3대원칙으로 정리하여주시고 연방제통일을 민족공통의 통일방안으로 확정 한 6.15공동선언을 마련 해주셔서 우리 민족끼리 전진하는 자주통일의 새시대, 6.15통일시대를 열어주시었다.

참으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은 오랜 세월 분열로 말미암아 시련과 고통을 겪어온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희망의 표대이다.

온 겨레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통일위업에 쌓으신 고귀한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조국통일의 주체적인 로선과 방침을 철저히 관철해나감으로써 민족분열의 비극을 끝내내고 통일강성대국의 새 역사를 펼쳐나가야 한다.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우리 민족이 들고나와야 할 기치는 조국통일 3대원칙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이다. 조국통일 3대원칙과 북남공동선언들은 민족자주선언, 민족대단결선언이며 조국통일의 불멸의 리정표이다. 여기에는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조국통일사상과 업적이 빛나게 구현되어있고 위대한 장군님의 투철한 민족자주리념과 확고한 통일의지가 맥박치고있으며 연방제통일방안을 비롯하여 통일문제해결의 가장 올바른 원칙과 방향, 방도들이 환히 밝혀져있다.

북남공동선언들을 고수하고 철저히 리행하는 여기에 민족의 생명력, 자주도 있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도 있는 조국통일의 비결이 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조국통일 3대원칙과 북남공동선언들을 최상의 지위에 놓고 적극 지지하고 실천하여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전환적국면을 열어 나가야 한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우리 민족이며 온 민족의 대단결은 통일의 담보이다. 조국통일은 그 누구도 대신해줄수 없는 우리 민족의 자주적위업이며 당국이나 특정한 계층의 힘만으로 이룰수 없는 전민족적위업이다. 북

과 남, 해외의 정당, 단체들과 각계 중인민들은 민족의 절박한 요구와 리익인 조국통일을 첫자리에 놓고 서로 뜻과 힘을 합쳐야 하며 연대, 연합하여 나라의 통일을 위한 거족적인 운동을 벌여나가야 한다.

해외의 온 겨레는 나라의 평화를 수호하며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내외호전세력의 반공화국대결과 전쟁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오늘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의 앞길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조국통일유훈을 받들어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새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고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원수님에게 계시어 통일은 확정적이고 민족의 미래는 밝고 창창하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북남관계개선과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섬으로써 이 땅위에 통일되고 번영하는 연방국가를 기어올려야 할 것이다.

과 평화번영을 위한 지름길을 밝힌 강령적지침이라고 강조하였다.

북과 남이 합의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성실히 리행하면 북남관계와 통일문제에서 극복 못할 난관이 없다고 하면서 그는 동포들 모두가 조국인민들의 힘찬 걸음을 발맞추어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높이 조국의 통일과 강성국가건설에 이바지해나가자고 호소하였다. 이어 예술공연이 있었다. 본사기자

다. 단군을 원시조로 하여 반만년의 유구한 세월 하나의 피줄을 이으며 한강토에서 살아온 우리 겨레가 민족적공통성을 공통분모로 한다면 북과 남의 두 제도는 얼마든지 하나의 민족, 하나의 통일국가안에서 공존, 공영할수 있다.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누가 누구를 먹거나 먹히우지 않는 공존의 원칙에서 민족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가장 빨리 실현할수 있게 하는 최선의 방도로 된다는 여기에 연방제통일방안의 공명정대성과 합리성, 현실성이 있다.

민족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놓은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의 발표로 연방제통일방안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다시금 뚜렷이 확증되었다.

북과 남은 6.15공동선언을 통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갈데 대해서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북쪽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과 남쪽의 연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나가기로 합의하였다. 6.15공동선언이 발표됨으로써 북과 남이 연방제통일로 지향해나갈수 있는 민족공통의 기초가 마련되게 되었다.

력사적인 10.4선언은 민족의 자주적 발전과 통일을 추구하고 6.15공동선언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실천강령이다. 북과 남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서로 힘을 합쳐 나간다면 북남관계발전과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민족통일실현의 길이 열리지만 그렇지 못한 대결과 전쟁방에 초래될것 없었다는것이 지난 기간의 총화이다. 지난날을 통하여 우리 겨레는 공존공영의 길, 연방제방식의 통일만이 민족을 전쟁의 위험에서 구원하고 나라의 통일위업을 순조롭게 성취하는 정당하고 유일한 길이라는것을 다시금 뚜렷히 절감하고있다.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일시적인 난관이 가로놓여있지만 북남선언들을 관철하여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길을 열어나가기는 우리 민족의 자주적진군은 그 누구도 가로막을수 없다.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겨레는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연방제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거족적으로 벌여나감으로써 이 땅위에, 이 하늘아래 부강번영하는 통일강성국가를 일떠세우고야말 것이다.

리어금

가장 공명정대하고 현실적인 통일방안

조선로동당창건 69돐과 10.4선언발표 7돐에 즈음하여

재우즈베끼스탄동포들 행사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인민군부대들과 인민경제 여러 부분을 현지지도하시는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10.4선언 전포과 조국의 발전모습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전시되어있었다.

중요일회장이 발언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서 1945년 10월 10일 창건하신 조선로동

당은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령도에 의하여 자기의 혁명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명실공히 인민을 위하여 북부하는 참다운 인민의 당으로, 혁명과 건설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끄는 로숙하고 세련된 혁명정당으로 강화발전되었다고 언명하였다.

조선로동당은 언제나 인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정책을

세우고 그 어떤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인민의 리상을 현실로 꽃피우는 가장 권위있는 혁명정당으로 빛을 뿌리고있다고 격찬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우리 조국을 더욱 부강한 나라로 건설하시기 위하여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걷고계신다고 경송하였다.

10.4선언은 북남관계발전

합리적인 통일방안, 민족공동의 통일대강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연구발표회 진행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에서 34돐과 10.4선언발표 7돐에 즈음하여 재중조선인총련합회가 9월 30일 중국심양에서 연구발표회를 진행하였다.

최은복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의장, 재중조선경제인연합회,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로녕지구협회,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 로녕지구협회 대표들, 동포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최은복의장이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과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랑독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제시하신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은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 그 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연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하는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다고 말하였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현실에서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조국통일을 이룩할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며 조선민족이라면 누구나 다 받아들일수 있는 강령적인 지침이라고 주장하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드림없는 통일의지에 의해 북과 남이 합의하고 내외에

연속히 심포한 10.4선언은 6.15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강령으로서 민족의 자주적발전과 나라의 평화통일에 대한 온 겨레의 의사가 반영된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라고 강조하였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이미 실천적으로 립증되었다고 하면서 통일을 바라는 조선민족이라고 통일대강을 지지하고 실천을 위해 투쟁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는 언명하였다.

이어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높이 조국통일대강을 이룩해나갈것이다》, 《북남공동선언들을 고수리행하기 위한

총련에서 기념강연회 진행

10.4선언발표 7돐 기념강연회가 4일 도꾜에 있는 조선회관에서 진행되었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과 중앙단체, 사업체 책임인원들, 간도지방 총련본부 위원장들과 일꾼들이 강연회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10.4선언발표 7돐에 즈음한 특화전집들을 시청하였다.

이어 《력사적인 10.4선언은 우리 민족끼리 기치밑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 불멸의 통일대강이다》라는 제목으로 강연회 재일조선인평화통일협회 부회장이 강연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관철하시려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통일의지와 애국애족의 용단에 의하여 10.4선언이 마련되었다고 하면서 선언의 내

거족적인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야 한다》, 《재중조선공민들은 력사적책임의중지하고 통일시대의 주인공적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10.4선언의 기치높이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발언이 있었다.

발언자들은 재중조선인들이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마련해주신 조국통일방안과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을 높이 받들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우리 민족끼리 기치밑에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데 대해 강조하였다.

용과 정당성, 생활력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따라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놓기 위한 공화국의 중추적인 조치들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길은 오직 북남관계의 리행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는 길에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여있으나 북남공동선언들을 고수하고 리행해나가는 겨레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언명하였다.

재미동포들 10.4선언발표 7돐 기념

력사적인 10.4선언발표 7돐에 즈음하여 4일 재미동포들이 미국의 로스안젤레스에서 기념행사를 진행하였다.

재미동포전국련합회를 비롯한 동포단체성원들과 재미동포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발언자들은 10.4선언의 채택으로 북남사이의 화해와

네팔단체들 10.4선언을 지지

력사적인 10.4선언채택 7돐에 즈음하여 네팔선군정치지협회, 조선통일촉진네팔위원회, 네팔아시아아프리카인민단결위원회가 2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6.15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인 10.4선언은 북남사이의 화해와 단합, 교류를 강화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기 위한 가장 정확한 길을 밝혀주고있다.

우리는 선언에 밝혀진 내용들이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고 조선반도뿐 아니라 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마련하며 북남관계를 발전시키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들이라는것을 확신하고있다.

우리는 조선문제에 유엔 총회 제30차회의 결의에 따라 해결되어야 하며 조선의 통일이 력사적인 6.15공동선

협력기운이 고조되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10.4선언이 리행되었다면 통일의 길이 열렸을것이라고 언명하였다.

그들이 분열된지 70년이 되어온다고 하면서 제2의 6.15통일시대를 열어 하루빨리 분열의 비극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동포들 모두가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하여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력사적인 10.4선언의 정진에 맞게, 1972년 7월 4일에 발표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간주한다.

현 남조선당국이 6.15북남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성실히 리행할것과 남조선에서 미군과 핵무기들을 모두 철수시키며 해마다 진행하는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들을 중지할것을 요구한다.

또한 국도를 돌로 갈라놓은 포크리트장벽을 해체하며 반민족적인 《보안법》을 폐지하고 6.15북남공동선언의 기치를 들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평화와 정의를 사랑하는 영웅적조선인민이 조선로동당의 선군정도에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책동을 짓부시고 반드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리라는것을 굳게 확신한다.

본사기자

조국소식

염주군에 체육관 새로 건설

염주군에 체육관이 새로 열렸다. 2층으로 건설된 체육관에는 배구, 축구, 탁구, 권투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경기를 할수 있는 체육실과 훈련장, 문화휴생시설 등이 그쯘히 갖추어져있다.

체육관이 건설됨으로써 군안의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체육활동을 더욱 활발히 할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다.

조선로동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이곳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체 육관을 자체로 일떠세울 목표에 건설을 힘있게 내밀었다.

군에서는 지방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현대적미감에 맞는 설계를 완성한데 기초하여 건설물의 질을 향상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한 시공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었다.

새로운 조선속도창조의

불길높이 착공의 첫 삽을 박은 때로부터 힘찬 투쟁을 벌려온 돌격대원들은 짧은 기간에 기초공사와 포크리트치기를 와다닥 해제했다.

군안의 여러 단위들과 인민들도 물심방면의 지원으로 건설에 이바지하였다.

새로 일떠세 체육관으로 는 군내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찾아와 다양한 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고 있다.

대학생들의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는 중요한 계기로 된다고 말하였다. 모든 학생청년들은 과학기술발전에서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미래가 달려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앞날의 과학기술강국, 인제강국을 떠메고나갈 강성조선의 믿음직한 역군들로 역세게 준비해나갈데 대하여 그는 강조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시회장을 돌아보았다. 본사기자

제6차 전국대학생정보과학기술성과전시회 개막

제6차 전국대학생정보과학기술성과전시회가 개막되었다.

전시회에는 전국의 대학, 전문학교 학생들이 부강조국건설을 떠메고 나갈 불타는 애국의 열정과 세계를 앞시나갈 야심만만한 탐구정신을 지니고 최첨단과학기술을 힘있게 벌리는 과정에 이룩한 1300여건의 가치있는 발명 및 정보기술제품들이 출품되었다.

개막식이 6일 3대혁명전시관에서 진행되었다.

김승두 교육위원장의 위원장, 판계부문, 청년동맹 일꾼들, 학생청년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이 개막사를 하였다.

그는 이번 전시회는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혁명인재육성에 쌓아올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강성국가건설구상을 더 잘 받들어나갈 선진시대 청년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정당들도 많다.

지구상에 당이 출현한 때로부터 오랜 력사가 흘렀고 오늘날 지구상에는 각이한 리념과 주의주장을 내세우는 당들이 헤아릴수 없이 많다. 그러나 조선로동당과 같이 창건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인민대중의 리익을 찾기에 놓고 민족자주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온 위력한 당은 없다. 조선로동당은 전체 조선인민의 최대의 민족적속원인 조국통일을 이룩하는것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내세우고있다.

조국통일은 아버지수령님의 필생의 위업이었으며 절절한 념원이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나라의 분열로 하여 우리 민족이 당하는 불행은 누구보다도 가슴아파하시며 후대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물려주시려고 생의 마지막시기까지 온갖 고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일관하게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로선을 견지하시였으며 나라의 통일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조국통일의 길에 쌓아올리신 업적은 우리 겨레에게 남긴 한없이 고귀한 유산이며 나라의 자주통일을 이룩할수 있게 하는 튼튼한 밑천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아버지수령님의 생전의 념원이었던 조국통일을 자신의 필생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 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아버지수령님께서

자주통일을 이룩하는 것은 조선로동당의 확고부동한 의지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3대원칙으로 정립해주시고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이 조국통일3대원칙의 관철을 위한 투쟁으로 일관되도록 걸음걸을 손잡아 이끌어 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언을 철저히 관철하자》, 《은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에는 아버지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을 변함없이 틀어쥐고 온 민족을 그 수행으로 불러일으켜 나라의 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하시려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과 의지가 깃들여있다.

우리 겨레에게 민족자주의 원칙,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이 구현된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마련해주시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예지와 애국애족의 대응단이 낳은 고귀한 결실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어 분렬사상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열풍이 온 강토에 세차게 휘몰아치고 북과 남, 해외의 통일애국력량이 안팎의 반통일세력의 발악적인 책동을 짓부시며 6.15통일시대를 힘있게 전진시켜올수 있었다.

조선로동당은 나라와 민족앞에 지닌 중대한 사명으로부터 출발하여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시종일관 협찬 투쟁을 벌려왔다. 근 70년이 되어오도록 지속되고있는 분렬로 하여 우리 민족이 당하는 고통과 불행은 이루 헤아릴수 없이 크다.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심히 억제당하고 민족이 이질화될 위험이 커가고있다. 남조선에서 외세와 반통일호전세력의 무모한 북침책동과 발소동이 끊임없이 감행되어 우리 겨레는 전쟁이라는 민족적참화까지 들을 위험속에서 살고있다. 세계의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자주독립의 길로 나아가고있는 오늘날의 시대에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해 강요된 분렬의 비극을 끝내지 못하고 자주권을 유린당하고있는것은 참을수 없는 민족적수치이다. 조선민족의 념을 지닌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민족의 운명이 걸린 조국통일문제를 외면할수 없다. 통일만이 우리 민족이 살길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만단을 무릅쓰고 조국을 통일하여 민족분렬의 비극의 역사, 치욕의 역사를 끝장내야 할 스스로 책임적인 과제를 안고있다.

조선로동당이 조국통일을 민족 최대의 절박한 과업으로 내세우려고 그 실현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온것은 바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위키에서 구원하고 평화와 번영의 길을 열어나가는 숭고한 책임감의 발현이며 애국, 애족, 애민 의 조국통일정책의 빛나는 구현이다. 조선로동당의 조국통일의지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한생을 바쳐 조국통일위업에 쌓으신 불멸의 주체적로선과 방침을 철저히 관철해나가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명도하는 데서 높이 발휘되고있다. 앞으로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든 조국통일3대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 조선로동당의 의지에는 추호의 드림도 있을수 없다. 조국통일3대원칙을 높이 들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는 여기에 민족의 화해와 단합, 자주통일의 지름길이 있다.

조선로동당의 조국통일의지는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을 옹호고수하고 그 리행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명도하는 데서 뚜렷이 발휘되고있다. 현시기 조국통일을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중대한 과업이 될 리행해나가는것이다. 조선로동당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시종일관 민족

자주를 주장하고있으며 자주통일선언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성과리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6.15공동선언발표이후 북남관계발전과 조국통일의 길에 이룩된 귀중한 성과들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책임지고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의 고수리행을 위해 온갖 성의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조선로동당의 정력적이며 애국적인 투쟁을 떠나 결코 생각할수 없다. 해외의 각계층 인민들은 사상과 제도,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을 고수리행하기 위한 거족적투쟁에 적극 합류하여야 한다. 그 어떤 힘도 유구한 력사를 통하여 형성발전된 단일한 조선민족을 영원히 둘로 갈라놓을수 없다. 오늘 우리 민족이 북과 남으로 갈라져있는 것은 5천년 민족사에서 겪어 온 일시적인 곡절이고 비운이다. 외세에 의하여 분렬된 우리 민족이 하나의 민족으로 다시 결합되는것은 우리 민족사의 필연적 추이이며 민족발전의 합법적요구이다.

조선로동당의 조국통일사상과 로선을 따라 우리 민족끼리 기치 높이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의 대단결로 이룩하려는것은 우리 겨레의 투쟁은 그 어떤 힘으로도 가로막을수 없다. 오늘 사람들은 우리 민족의 자

주통일위업을 확신성있게 주도해나가고있는 조선로동당을 보면서 위대성은 령도자의 위대성에 달려있다는것을 더욱 가슴벅차게 절감하고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의 애국위업을 빛나게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어 조선로동당은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성업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고있다.

철세위인들의 숭고한 애국의 뜻과 유훈대로 민족분렬의 고통을 하루빨리 끝내려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이 실현하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부동한 의지이고 결심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조국통일의지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첫차리에 놓고 애국, 애족, 애민의 광폭정치를 일관하게 실시하고있는데서도 나타나고있다. 그이께서는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에서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변명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나갈것이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책임적이고 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일것이라고 내외에 엄숙히 천명하시었다. 이 말씀에는 민족적 량심을 가지고 조국통일을 지향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그와 단결하며 조국통일의 한데오에서 손잡고나가기려는 확고한 립장과 일단 손을 잡은 사람들과는 조국통일의 길에서뿐만아니라 통일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에서도 힘을 합쳐나가기려는 뜨거운 민족애가 어려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나라의 통일과 부강번영을 위한 애국위업에 모든것을 다 바치고있는 남남동도들과 해외동도들을 언제나 따뜻한 사랑의 함몰에 안아주고계신다. 국가의 크고작은 중대사들을 돌보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떠나간 남측의 6.15관계자들과 조국통일에 공헌한 인사들을 잊지 않으시고 화환과 조전도 보내주시며 그들의 삶을 값높이 빛내여주시는 뜨거운 인덕의 세계를 보orsch은이시아말로 민족의 자애로운 아버지, 조국통일의 찬란한 구성이시라는것을 심장으로 절감하고있다.

안팎의 분렬주의세력의 악랄한 도전과 방해책동으로 말미암아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의연 난관과 장애가 가로놓여있다. 하지만 조선로동당의 공명정대하고 원칙적인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이 있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애족의 사상과 뜻을 높이 받들어나가는 우리 겨레의 단합된 투쟁이 있어 조국통일위업의 실현은 필연적이며 확정적이다.

온 겨레는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통일애국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감으로써 민족분렬의 비극을 하루빨리 끝내려고 자주통일의 밝은 아침을 기어이 안아오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김강철

민족과 통일을 위해 커다란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우리 겨레의 정모의 마음은 초호는 세월과 더불어 더욱 뜨거워나가고있다.

돌이켜보면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외세에 의해 나라가 분렬된 첫 시기부터 우리 겨레가 당하는 불행과 고통을 그 누구보다도 가슴아파하시며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일관하게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로선을 견지하시였으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조국통일을 위한 거룩한 령도의 자욱을 새기시었다.

그 통일애국의 나날들에는 겨레에게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조국통일방도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제시해주신 잊지 못할 나날들도 있다.

1970년대에 들어와 외세의 민족분렬영구화책동은 더욱 악랄해졌다. 미국은 우리 민족의 통일열망에 도전하여 《두개 조선》을 조작하는것을 대조선정책의 기본 전략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여러 방면으로 책동하였으며 남조선에 침략무력을 더욱 증강하면서 새 전쟁도발소동에 미친듯이 매달렸다.

조선반도에서 영구분렬과 전쟁위험이 날로 짙어가던 주체69(1980)년 10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하신 연설에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할때 대한 획기적인 방안을 천명하시었다. 다 아는것처럼 미국의 남

조선강점으로 하여 나라가 분렬되고 북과 남에는 수십 년동안이나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있다. 굳어질대로 굳어진 사상과 제도의 차이만을 절대시한다면 우리 겨레는 언제까지나 화해와 통일을 이룩할수 없으며 불신과 대결만이 격화되게 될것이다.

하기에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통일은 반드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초하여 실현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와 함께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통일방도로서 련방국가 창립방안을 내놓으시었다.

고귀한 통일유산

이것이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북과 남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융합하는 기초우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 그 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게 함으로써 나라의 통일을 가장 합리적으로 이룩수 있게 하는 장대한 통일방안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새로운 통일방안을 제시하시면서 련방국가형성의 원칙과 방도, 련방국가의 성격과 기능 등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아버지수령님께서 일찌기 1960년대에 제시하신 파도적인 북남련방제방안을 조

성된 정세와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통일기운에 맞게 더욱 발전시킨 새로운 통일방안이며 완성된 하나의 통일방안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방안은 우리 민족의 근본리익과 나라가 처한 현실적조건으로부터 출발하여 그리고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할수 있게 하는 가장 공명정대하며 합리적인 통일방안인 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과 함께 통일국가 실시하여야

아버지수령님께서 겨레에게 안겨주신 조국통일3대원칙의 내용을 이루며 그것은 오늘 민족끼리 완성된 하나의 통일방안이다.

아버지수령님의 조국통일 유훈을 기어이 관철할실 애국의 마음과 의지를 지니시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통일을 위해 자신의 한평생을 다 바치시었다. 외세의 침략야욕에 의해 조선반도에 밀려오는 전쟁불기름을 선군의 총대로 막아내시고 겨레의 운명을 지켜주시며 선군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시던 업혹했던 그 나

련방제통일을 민족공동의 통일방안으로 확정한 6.15공동선언을 마련해주시여 우리 민족끼리 전진하는 자주통일의 새 시대, 6.15통일시대를 펼쳐주시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나라의 통일을 위해 겨레앞에 쌓으신 거대한 민족사적공적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개척하고 이끌어오신 조국통일위업의 진두에는 오늘 또한 한 분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서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필생의 뜻과 유훈을 관철하여 반드시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는것을 자신의 성스러운 사명으로 간직하시고 민족의 자주통일운동을 현명하게 이끌고계신다.

올해의 신년사에서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위업수행의 밝은 앞길을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과 의지에 따라 공화국 국방위원회 중대제안, 특별서한 등이 련이어 발표되고 북남고위급 접촉이 이루어졌으며 겨레는 통일신심과 락관에 넘쳐 조국통일운동을 힘차게 벌려나가고있다.

민족이 가는 통일의 앞길에 의연 협준한 장애와 난관들이 가로놓여있지만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마련해주신 조국통일의 휘황한 설계도가 있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세련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이 땅우에는 머지않아 통일강국이 우뚝 솟아오르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리경순

평양의 보통강반에 금양봉사기지인 청류관이 새로 건설되었을 때였다. 개관을 앞둔 어느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그곳을 찾으시었다.

그이께서 가족식사칸을 돌아보실 때였다. 밥상을 유심히 살펴보기도 하고 다시금 허리를 굽혀보기도 하신 그이께서는 누구에게랴없이 밥상이 좀 높아보이지 않는가고 하시었다.

《?!...》 밥상의 높낮이에 대해 가늠해본 사람은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상이 높지 않은지 방안에 들어가 상앞에 앉아보아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었다.

이윽고 한 사람이 밥상에 마주앉아 높이를 짐작해보았다. 두손을 올려놓고 식사할 때의 자세를 취해보아도 별로 불편한게 없었다. 그는 별로 높은감을 모르겠다고 하였고 다른 사람들도 그의 앉은 키와

상높이를 가늠해보고 알맞은것 같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생각을 달리하시었다. 밥상의 높이를 이모저모로 눈여겨보신 그이께서는 이 방은 가족들이 와서 식사할 방이라는것을 념두에 두어야 한다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즐겁게 식사를 해야 하겠는데 아이들이 불편해하면 부모들의 마음이 즐거울수 없을것이라고 하시었다.

《?!...》 가족식사칸에서 조금이라도 불편한 점이 있다면 인민을 위한 봉사기지로써의 청류관을 완전무결하다고 볼수 있겠는가.

그이께서는 밥상을 아이들에게 지내 높이 않게 좀 낮추도록 하라고 이르시었다.

밥상에 마주앉은 한식술의 앉은 키와 식사분위기를 구석구석 헤아리신 세심한 가르치심이었다. 본사기자

달라진 밥상의 높이



위대한 장군님 병사들을 찾아가신 파도세찬 초도의 바다길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조국수호를 위해 이어가신 전진길의 높은 산, 험한 평야에는 헌신의 그 자욱자욱을 전하는 지명들이 많고 그 하나하나에는 가슴뜨거운 사연들이 깃들여있다.

오성산 언젠가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말씀하시었다.

자신께서 선군정치를 하고 선군의 상징인 오성산이 있어 나라를 지켜냈다고, 오성산이란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감고하였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가 잊혀지지 않는다고.

오성산은 반공화국적대세력의 압살책동이 극도에 달하였던 준엄한 나날 전진시찰의 길에서 역수로 내린 소낙비로 하여 벼랑길에서 미끄러져내리는 승용차를 한치한치 미시며 고지우의 병사들을 찾아가신 선군평장의 모습이 우뚝이 안겨오는 곳이다. 인류력사를 돌이켜보면 전방지휘소를 찾아 전진길을 달린 군사령관들에 대한 이야기는 있어도 나라의

선군길이 전하는 뜻깊은 지명들

령도자, 군최고사령관이 평화시기에 최전방의 자그마한 지휘소가 위치한 협산오지를 찾았다는 이야기는 없다.

백전두꿈이의 오성산 칼벼승을 타시 오늘도 장군님의 선군길이 얼마나 길고하였는지, 이 민족의 운명이 어떻게 지켜졌는가를 사람들에게 눈물겹게 새겨주었다.

관문점 관문점은 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쌍방이 총부리를 마주하고 대치하고있는 최전선의 최전방이다.

바로 이런 위험천만한 곳에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걸머지신 장군님께서 시찰하시리라고는 누구도 생각 못하였다.

자연도 회안개를 띄워 그이의 안병을 지켜드리던 그날 장군님께서서는

관문점초병들에게 노예가 되겠는가 아니면 자주적인 민, 자주적군위병이 되겠는가, 나는 동무들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당부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관문점은 오늘도 빨치산의 아들이신 그이의 크나큰 담력과 배짱을 웅변으로 말해주고있다.

초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패승정을 타시고 초도의 병사들을 찾아가실 때의 바다날씨는 더없이 험하였다.

집채같은 파도가 기승을 부리는 바다를 바라보시며 그이께서는 만류하는 일군들에게 말씀하시었다.

섬에서 병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땅이 맞붙은것 같은 풍랑속에서 요동치듯 전진하는 패승정이 부두에 닿았을 때 사나운 파도와 풍랑속을 헤쳐오시느라 흠뻑 젖은 장군님의 야전술옷자락을 부여잡고 병사들은 《만세!》를 부르기도 불렀다. 본사기자 리경철

답알로 바위도 깨게 하는 사상의 힘

지금 거리와 마을, 일터와 공원 등 그 어디서나 이번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거둔 자랑찬 성과로 하여 기쁨과 환희의 열기가 차넘치고 있다.

국제경기무대에서 혁혁한 승리를 이룩하고 조국으로 돌아오는 그들을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책임감부들은 물론이고 수십만의 평양시민들이 수심리연도에 펼쳐 나와 뜨겁게 맞이하고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우승자들을 축하하여 목란관에서는 성대한 연회가 진행되고 TV에서는 선수들의 경기성과를 축하하는 각계 종인민들의 목소리가 계속 울리고 있다. 한마디로 온 나라가 명절일색으로 기쁨과 감격에 휩싸여 있다.

이번에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서 공화국의 선수들이 이룩한 성과는 대단히 크다.

아시아의 45개 나라와 지역의 1만 4 500여명이 참가한 경기대회에서 11개의 금메달을 포함한 36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빛나는 성과를 달성하였던 것이다.

특히 여자축구선수들은 체육에서 상징목인 축구경기에서 16개의 골을 넣고 세계여자축구선수전보유팀인 일본팀을 비롯한 맞대든 모든 팀들을 물리치고 제 1위를 쟁취함으로써 세계적인 축구강국으로서의 영예를 빛냈다. 령기경기대회에서만도 4개의 금메달을 따고 세계신기록을 다섯 번이나 세워 세인을 놀래웠다.

하다면 이번 경기대회에서 이룩한 놀라운 성과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이번 아시아

경기대회 전기간 각국의 취재진들이 연속 들어대는 질문이었고 관중들과 세인이 알고파하는 문 제이기도 하다.

그 비결을 한마디로 압축하여 표현한다면 사상의 위력, 정신력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남자력기 56kg 급경기에서 세계신기록을 수립하고 금메달을 쟁취한 엄윤철선수가 각국의 기자 15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한 대답이 아주 명쾌하게 말해주고 있다.

당신들은 답알로 바위를 깬다고 생각해보는 것이 있는가?

답알로도 사상을 채우면 바위를 깨뜨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주장하는 사상론이다. 우리는 항상 이것을 좌우명으로 삼고 훈련을 진행한다. 그리고 경기들마다에서도 이 정신력으로 싸워 승리한다!...

바로 이것이다. 엄윤철선수는 물론이고 경기에 출전한 모든 선수들이 이러한 정신력으로 경기를 진행하여 혁혁한 성과를 거두었다. 공화국의 령사에 자랑스러운 한페지를 남긴 11개의 금메달은 사상의 힘으로 들어올린 것이다.

흔히 사람들은 체육이 나라의 경제발전과 국민들의 생활수준과도 적지 않게 관련되어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체육발전은

위해서는 그만큼 국가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것은 경제의 발전과 규모와도 연관이 되기 때문이다.

오늘 공화국은 제국주의의 끈질긴 봉쇄와 제재위협속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다. 그러다나니 아직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고 풍족하지 못하다.

그속에서도 공화국의 체육인들이 국제체육무대에서 이렇듯 자랑스러운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강한 정신력을 떠나 생각할 수 없다.

세계신기록을 린이어 세우는 불매의 힘, 최후의 승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달리고달려 우승을 안아오는 불굴의 투지는 오직 람홍색공화국기를 세계의 창공높이 휘날려 경애하는 원수님께 승리의 보고를 드리려는 공화국의 체육선수들의 높은 정신력의 산물인 것이다.

우리 나라 속담에 답알로 바위 치기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자기힘을 료양 못하고 도저히 승산이 없는것에 함부로 맞서는 어리석음을 비겨 이르는 말이다.

그러나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와서 이 속담도 이제는 달라지게 되었다. 답알로 바위를 도저히 깰수 없지만 이 바위에 사상을 넣으면 바위도 깨뜨릴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체육발전은

국의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 심어주는 사상제일주의이다.

그것을 이번에 공화국의 선수들이 인천의 하늘아래에서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옛날에는 사람을 한명 들어올려도 평장한 힘장수라고 동네방네에서 떠돌았다. 그런데 이번 엄윤철선수는 자기 몸무게의 3배가 넘는 170kg을 버쩍 들어올려 세계를 깜짝 놀래웠다. 무슨 힘이 그 무거운것을 손쉽게 들어올리게 했는가. 육체적능력에 사상의 힘이 더해져 보통하는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한 것이다.

체육선수들의 이 드높은 정신력은 대회의 마감을 장식하는 여자축구경기에서도 유감없이 파시되었다.

공화국의 여자축구선수들이 여자축구결승경기에서 제노라 하는 일본팀을 3:1이라는 압도적인 점수차이로 통쾌하게 이길수 있는 것은 단순히 기질이 만나주지 않았고 육체적준비가 좋아서도 아니었다.

모든 선수들이 오직 우승으로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려야 한다는 하나의 일념으로 심장이 고동쳐졌기에 12번 김윤미선수는 상대팀골문에 첫 파르리를 넣을 수 있었고 주장인 10번 라은

심선수는 비호같은 돌입으로 상대팀방어수들을 따라앞서 두번째 득점을 가져올수 있었다. 세번째 득점장면은 이 경기의 제일 멋진 장면이었다. 날아오는 공을 미처 관중들이 지켜볼새도 없이 순식간에 비호같이 돌입하며 머리받기로 상대팀문안에 처넣은 3번 허은별선수, 그것은 남조선의 언론이 평한 그대로 일본의 심장을 꿰뚫는 조신의 총알이었다.

하다면 공화국의 체육선수들이 이번에 발휘한 사상의 힘, 정신력은 어디에 원천을 두고있는 것인가.

그것은 체육선수들에게 돌려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다.

사회주의문명국가를 건설하는 데서 체육이 노는 역할을 중시하시게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세치게 일으켜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이시다. 그이께서는 선군령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올림픽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쟁취하고 돌아온 선수들을 친히 만나주시고 경기성과를 축하해주시면서 한명 한명 자신의 곁에 세워 기념사 진도 찍어주시었다. 국제경기장에 나가 우승을 하여 공화국기를 날리는 체육인들에게야말로 참다운 애국자라고도 영웅들이며 멋쟁이들이라는 그이의 말씀은 체육인들의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

져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남녀축구선수들의 결연경기도 지도해주시어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에게 무한한 힘과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시었다.

이런 사랑과 믿음을 가슴한가득 받아안은 체육인들이 어제 국제경기무대에서 자기의 힘과 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하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 기자회견에서도 말한것처럼 선수들은 경기장을 달리면서도 원수님을 그리며 달리었고 환차레의 경기를 해도 원수님의 사랑과 배려에 힘을 얻어 좋은 기록을 세웠다. 평양에서 자기들의 경기승전보고를 기다리실 원수님을 생각하며 인천의 숙소에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그리는 밤》이라는 모임도 연 체육인들이다.

이 뜻깊은 모임에서 령기강자 김은국선수가 읊은 자작시 《그리운 김정은동지》, 탁구강자 김혁봉선수의 선창에 따라 인천의 하늘가에 울려 퍼진 노래 《그이 없인 못살아》 등은 절세위인을 그리며 따르는 선수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렬한가를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사람들의 정신력이 최대로 발휘될 때 그것은 무서운 힘을 낼게 한다.

이번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공화국의 선수들이 이룩한 놀라운 성과는 령도자를 따르고 령도자의 위업을 충심으로 받들어 나아가는 조선인민의 사상정신력이 얼마나 강한가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세상에는 나라가 많아도 사상을 제일 중시하는 나라도 조선이고 령도자를 중심으로 한 일심단결의 힘을 가진 정신력의 최강자도 조선이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청소한 공화국이 정규군으로 강화발전된 지 2년이 된 군대와 인민을 가지고 수적, 기술적으로 대비가 되지 않는 제국주의강자를 타당한 것도 군대와 인민이 자기 령도자를 받들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영웅적으로 싸우는데 있다.

세상은 이번 경기대회에서 공화국의 선수들이 거둔 성과를 목격하면서 자기 령도자를 받들고 오직 그이만을 따르는 혼연일체를 이룬 인민은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하며 그것이 폭발할 때 얼마나 위대한 기적을 낳는가를 다 지금 똑똑히 보게 되었다.

미국이 조선을 압살하려고 별의별 책동을 다해도 사상의 강국 조선은 조금도 끄떡하지 않으며 자기가 선택한 자주와 사회주의의 한길로 끝까지 나아갈 것이다. 인천의 하늘가에 공화국기를 펄펄 휘날렸처럼 머지않은 앞날에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의 기발을 휘날리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 체조 여자평균대운동에서 1위를 쟁취한 김은향선수의 경기장면
← 일본팀을 리승하고 영예의 제1위를 쟁취한 우리 나라 여자축구의 경기장면
→ 남자력기 56kg급경기에서 1위를 쟁취한 엄윤철선수의 경기장면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의 봉화는 꺼지지 않지만 경기대회의 나날에 우리 겨레를 뭉글하게 했던 감동깊은 일들은 지금도 겨레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고 있다.

이번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마음과 마음이 모여 화해와 단합의 불길을 지핀 뜻깊은 대회였다.

북측선수들이 경기를 진행하는 어느 장소에서나 그들을 응원하는 남북응원자들의 함성이 장배를 진감했고 그 눈물없이 볼수 없는 감동적인 장면들은 온 겨레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다.

9월 15일 이번 경기대회 남자축구 조별예선 공화국팀과 중국팀간의 경기에서부터 시작된 감동은 경기대회 전기간 령기, 권투, 탁구 등 북측선수들이 참가하는 모든 경기장들에서 끝없이 출렁이였다.

남녘의 겨레들은 《남북공동응원단》과 《아리랑응원단》을 비롯한 큰 규모의 응원단까지 조직하고 북측선수들을 응원하였으며 고향의 로인으로부터 엄마의 손목을 잡고 관람석에 앉은 어린 소년들이 공기까지 한마음이 되어 공화국선수들의 경기를 열광적으로 응원하였다.

나이와 소속, 정견은 달랐어도 북의 선수들을 응원하

는 그들의 응원열기는 한결 같았다.

그 감동깊은 응원은 조선팀과 일본팀간에 진행된 여자축구 결승경기마당에서 최 절정을 이루었다.

이 경기는 조선이 일본을 3대 1이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누르고 우승을 쟁취한 훌륭한 경기이기도 했지만 남측 관중이 북측선수들을 일방적으로 응원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평범한 진

담례하자 관중들은 일제히 《조국통일》을 소리쳐 부르며 화답했다. 북의 선수들과 남의 관중들이 마주서서 《조국통일》 구호를 함께 부르며 통일열기를 드높이던 그 감동깊은 장면들.

그날 경기장은 우승의 고지를 향해 뛰고 또 뛰는 북녘선수들과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남녘 응원자들의 열띤 웨칭으로 하여 하나의 작은 통일을 이

다. 북녘조선의 장한 딸들이 통일을 만들었다. 작은 축구공 하나로 8천만 가슴에 조국도 하나요 민족도 하나임을 깨우쳤다. 조선여자축구는 남녘동포들의 응원을 받으며 백년속적 일본을 무참히 침몰시켰다.

조선선수와 일본선수가 맞붙은 문학경기장에는 갓난아기도 구순로인도 로동자도 지식인도 수구보수도 진보개혁도 천주교인도 기독교인

축선수들은 남녘겨레의 이러한 동포애 어린 열렬한 응원에 실려 경기들마다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이번 경기대회기간에 북측선수들은 5개의 세계신기록을 수립하고 11개의 금메달을 포함한 수십개의 메달을 쟁취하였다.

이러한 눈부신 성과들에는 남녘인민들의 사심없는 응원도 깰수 없었다.

이번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우리 민족은 하나이고 우리 겨레는 누구나 통일을 바라고있으며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진리를 다시금 뚜렷이 확증시켜주었다.

서로 만나면 말이 통하고 정이 통하여 일사단결 되고 저절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수 없는게 바로 한민족, 한겨레가 아니겠는가.

이러한 겨레의 통일열기가 삼천리강산을 뒤덮고있는데야 조국통일이 어찌 먼 후날의 일이라고 생각하겠는가.

우리 겨레는 어서빨리 하나가 되어야 한다. 민족이 힘을 합치면 무서울것이 없고 통일조국도 우뚝 일떠세울수 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가슴에 소중히 안고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해 어깨걸고 힘차게 나아갈것이다.

본사기자 최명재

하나된 민족의 기개를 과시한 잊지 못할 나날들

리를 다시금 일깨워준 경기였다.

북측선수들이 경기장에 나타나자 남측 관중들은 일제히 환호와 함께 박수를 보냈다. 이것을 두고 남조선의 한 출판물은 《근질근질하던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DNA가 그대로 발산되는 듯 했다.》고 전했다.

관람석을 짝 메운 수천명이 달하는 남측 관중들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는 하나다》라고 쓰인 대형구호판을 내걸고 목청껏 북측 여자축구선수들을 응원하였다. 경기마감과 함께 북측선수들이 응원석을 들며

투였다.

경기가 끝난 후 북측 김광민 여자축구감독은 기자회견에서 남측 관중들의 응원에 대해 《이 응원을 들으면서 북과 남은 하나의 민족이라는것, 조국통일을 바라 는 남녘인민들의 마음을 보았다.》고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시상식이 끝난 후 북측선수들과 남측선수들이 함께 어깨걸고 기념사진을 찍자 경기장은 박수와 환호로 더욱 들끓었다.

남조선의 한 출판물은 이날 경기소식을 전하면서 《그것은 통일조국이었

도 불교인도 천도교인도 무신론자도 부자도 가난한이들도 더우기 북도 남도 민족대 단결의 용광로에 녹아 뜨거운 피물이 되었다.

통일의 바람 막을자 그 누구나. 하나됨을 가둘자 그 누구나. 막는자 날려버리는 태풍이 된다. 가두는자 쓸어버리는 물결이 된다.

조국의 통일은 7.4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 10.4선언과 북녘방자들이 차출된 등근 축구공과 함께 그렇게 오고있다.》고 크나큰 감동을 더트렸다.

비록 공화국의 응원단은 인천에 나가지 못했지만 북

김정은령도자의 사랑에 금메달로 보답한 조선 여자 축구팀

여러 나라에서 보도

우리 나라 여자축구팀이 제 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영예의 제1위를 쟁취한 소식을 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프랑스의 AFP통신은 조선 여자 축구 선수들이 김정은령도자의 사랑에 금메달로 보답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 여자축구에서 조선팀이 일본팀을 3:1로 꺾고 우승하였다. 조선팀이 경기시작부터 완강한 공격을 틀어쥐어 12분경에 김윤미가, 52분경에 주장 라은심이, 87분경에 허은

별이 각각 골을 넣은 반면에 일본팀은 한골만 기록하였다.

경기가 끝난 후 조선팀 책임감독은 기자들에게 오늘 의 금메달은 김정은령도자의 뜨거운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선수들이 모든것을 다 바쳐 혼연하고 경기에서 끝까지 싸운 필연적결과라고 말하였다.

일본팀책임감독은 조선팀은 응당 축하를 받아야 한다. 조선팀은 잘 했으며 선수들사이의 협동이 훌륭하였다 고 찬양하였다.

본사기자

북여자축구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남조선언론들 광범히 보도

우리 나라 여자축구팀이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영예의 제1위를 쟁취하고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떨친데 대해 남조선언론들이 광범히 보도하였다.

1일과 2일 《한겨레》, 《국민일보》, 《세계일보》를 비롯한 언론들은 우리 여자축구팀이 결승전에서 일본팀을 3:1로 리승하였다고 앗을 다루어 보도하였다.

《연합뉴스》는 북의 여자축구팀이 결승전에서 일본을 꺾고 금메달을 쟁취하였다고 하면서 이로써 2002년과 2006년에 이어 아시아경기대회 여자축구경기에서 세 번째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고 전하였다.

경기에서 전반적인 주도권은 북이 쥐었다. 북은 처음부터 좌우측면을 활용한 빠른 공격으로 일본을 강하게 압박하였다. 당황한 일본은 공격기회를 잡지 못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일간스포츠》는 이번 경기를 통한 북여자축구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하였다고 평하였다.

북이 일본을 꺾은것은 결코 우연이나 운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인터넷신문 《자주진보》는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진행된 여자축구 결승경기 소식을 전하면서 《조선여자축

구팀이 《문학대결》에서 일본을 침몰시키고 정상에 우뚝 섰다. 체인 공격력과 조직력, 빠른 속도를 앞세운 그들은 경기의 주도권을 쥐고 일본에 한수높은 실력을 발휘하였다.》고 썼다.

인터넷신문 《통일뉴스》는 북의 처녀들이 일본을 꺾고 금메달을 쟁취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시상식이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책임감독이 오늘의 경기성과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우리 여자축구선수들에게 돌려주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의 결과》라고 피력한데 대해 신문은 소개하였다.

본사기자

북남공동선언들을 존중하고 리행할것을 주장

10.4선언발표 7돐에 즈음하여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3일 인천에서 기념모임을 가졌다.

모임에서는 10.4선언발표 7돐을 맞으며 6.15공동선언실천 남측공동위원회가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랑독되었다.

이어 발언자들은 남북문제 해결은 남의 일도, 국제사회가 대신해줄 일도 아니라

말하였다.

지금은 말로만 하는 신뢰가 아니라 책임적인 행동이 필요한 때이며 그것은 남북공동선언들을 존중하고 리행해나가려는 태도로부터 시작 된다고 주장하였다.

더이상 통일을 늦출수 없 다는 각오를 안고 8.15해방 70돐과 6.15공동선언발표 15돐이 되는 다음해를 제2의 6.15시대를 여는 전환의 해로 되게 하자고 그들은 강조

하였다.

본사기자



북측선수들을 열광적으로 응원하는 평양시민들



10월은 체육열기로 뜨겁다

은 나라가 열광하고 있다.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떨친 선수들의 혁혁한 경기성과는 강성국가건설을 다그치며 체육강국을 지향하는 전체인민들에게 큰 고무와 기쁨을 주고 있다.

지난 5일 평양은 하늘땅이 뒤흔들리는 듯 했다. 각계층 시민들이 거리거리에 떨쳐나와 아시아경기대회에서 돌아오는 선수들을 감격적으로 맞이했다.

손에손에 꽃다발, 꽃송이를 든 각계층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룬 평양시내는 말 그대로 환영의 꽃바다를 이루었고 울긋불긋 꽃장식을 하고 연도를 누비는 선수들의 자동차행렬은 화려한 꽃수레를 연상케 했고 꽃목걸이를 건 선수들은 개선장군들을 방불케 했다.

《장하다!》, 《환영!》, 《축하!》... 청룡은 환호가 거미마당에서 터져오르는 환영의 꽃바다속에서 선수들도, 환영군중들도 기쁨의 눈물, 감격의 눈물로 두부를 적시었다.

조국과 인민이 지켜본다는 애국의 열정과 보답의 마음

으로 달리고달려 오늘의 패승을 안아온 승리자의 기쁨의 눈물, 경기마다에서 승리의 힘과 열정을 안겨주고 이렇듯 성대한 환영행사까지 마련해준 고마운 품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다.

공세운 자식의 뒤에는 훌륭한 부모가 있기 마련이다. 오늘의 꽃수레, 꽃바다에 떠받들려온 우승자들의 뒤에는 체육강국건설을 구상하시고 나라의 체육발전을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예지와 현명한 령도의 손길이 어려웠다.

강성국가건설을 이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체육을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과시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중대사의 하나로 여기시고 체육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정력적으로 이끌고 계신다. 은 나라에 체육열풍을 일으켜 사람들의 체력을 증진시켜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문명생활을 함양하도록 하며 체육기술을 발전시켜 공화국이 하루빨리 체육강국의 지위에 오르도록 하자는 것이 그의 체육관심의 뜻이고 의도이다. 그의 비범한 예지와 정력적인 령도에 의해 은 나라에 체육열기가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대중적인 체육활동으로 사회가 활력과 생기를 뽐내며 체육선수들은 국제무대에서 뛰어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나라의 체육환경과 조건을 부단히 개선하도록 하시고 체육선수들에게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베푸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체육증시령도는 체육기술발전과 체육강국건설의 담보로 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할 남녀 축구팀의 검열결정을 지도하시며 우리 식의 체육기술과 전술체계, 훈련방법을 완성하여 축구기술을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도록 하는 데서 나서는 문체를 가르쳐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자기들의 경기지도하시고 축구기재도 보내주시며 앞으로의 국제경기에서 조국의 영예와 존엄을 떨치리라 는 고무와 격려를 주신 그의 믿음과 기대는 그들 모두의 힘과 투지가 되고 견인발의 정신력이 되어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들만이 아닌 령기, 체조, 사격, 레스링을 비롯한 여러 종목경기에서 우리 선수들이 거둔 금메달우승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와 보살핌이 낳은 자랑찬 결실이다. 하기에 라운심, 김은국, 장은희를 비롯한 선수들은 우승의 기쁨을 묻는 기자들에게 한결같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과 사랑이 그대로 자신들의 담력과 배짱, 정신력의 분출로 되었다고 소감을 피력하였던 것이다.

본사기자 리 설

이들의 심장마다에 지닌 크나큰 애국의 큰 힘에 떠받들려 은 나라 곳곳에서 혁신의 불길은 거세차게 타번지고있으며 날마다 기적이 창조되고있다. 《쫓는 힘 노도도 내밀어》라는 애국가의 구절처럼 김정일애국주의의 그 위대한 힘으로 사회주의문명강국을 보란듯이 일떠세우고있다.

수천수만의 가슴마다에 새겨져 있는 이런 숭고한 애국의 마음들에 받들려 조선이 이처럼 강한것이고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의 아침은 반드시 이 땅위에 밝아오게 되는 것이다.

본사기자 김 준 경



단상 애국가와 눈물

이번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사람들의 눈길을 유난히 끌며 깊은 감동을 자아내게 한것은 시상식장면이었다.

영예의 시상대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람프색공화국기가 오르고 애국가의 장중한 선율이 울려 퍼질 때마다 우리 선수들의 얼굴에서는 누구라 할것없는 애국가를 들으며 눈물이 흘러내렸던 것이다.

세계패권을 자랑하던 일본팀을 3:1이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이기고 시상대에 올라서서 찬란한 공화국기에 거수경례를 표하며 눈물속에 애국가를 따라부르던 여자축구선수들, 탁구 남녀혼성복식경기에서 아시아의 패권을 쥐고 장대에 울려 퍼지는 애국가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던 김혁봉, 김경선선수들, 사격경기에서 1등을 한 연선 사나 이 김지성선수도, 여자권투경기에서 우승을 한 무쇠주먹 장은희선수의 두볼에서도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

TV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는 공화국의 인민들도 저마다 격정에 겨워 눈물을 흘리었다. 체육선수로서 국제경기무대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 때의 기쁨은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고 행복일 것이다.

하다면 그 순간 세계의 다른 나라 선수들도 다 자국의 국가를 들으며 눈물짓는것인가. 아니다. 애국가와 함께 눈물짓는것은 공화국선수들에게서 볼수 있는 특이한 모습이다.

하더라면 우리 선수들은 왜 1등시상대에 올라 애국가를 들으며 눈물흘리는것인가. 선수들이 흘리는 그 진한 눈물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애국심의 억센 분출이다. 눈물은 결코 꾸며낼수도 지어낼수도 없다.

자본주의나라 체육인들에게 있어서 금메달은 개인의 명예와 부를 축적하기 위한 인생의 목표로 되고있다. 그 개인의 명예나 금전적리해관계로써는 결코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

눈물은 애국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공화국의 선수들의 가슴마다에는 가장 소중한 감정인 애국의 마음이 보석처럼 한가득히 차 있다.

자기를 키워주고 내세워준 고마운 어머니조국에 우승의 금메달로 보답하려는 오직 하나의 생각과 각오속에 낮에 밤을 이어 땀을 흘려가며 이악하게 노력하는 공화국의 선수들이 있다.

그들의 보석같은 애국의 마음을 더욱 활화산같이 지펴준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사로운 믿음과 사랑이었다.

국제경기에서 이기고 돌아온 금메달수상자들을 자신의 결로 불러주시고 그들의 경기성과를 축하도 해주시고 한명한명 자신의 결에 세워 기념사진도 찍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그이께서는 국제경기들에 나가 우승을 하여 공화국기를 날리는 체육인들이야말로 참다운 애국가자들이고 영웅들이며 멋쟁이들이니나라는 최상최대의 믿음과 영광을 안겨주시었다.

은 나라 인민들과 체육인들을 사랑의 환풍에 따듯이 안아주시며 주실수 있는 사랑을 다 안겨주시고 비범한 령도로 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이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공화국의 체육인들에게 있어서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은 곧 조국이다.

하기에 경애하는 그이께 최상의 경기성과로 기쁨을 드리겠다는 결사의 각오를 안고 우리 선수들은 경기마다에서 평시에 련마한 힘과 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11개의 금메달을 따내고 5개의 세계신기록을 세워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과시하였다.

본사기자 김 준 경

우승의 비결을 묻는 기자들에게도 한결같이 령도자의 사랑과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였고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고 조국과 인민의 기대에 보답하게 되어 기쁘다는 말을 하였던 것이다.

그 기쁨, 그 감격이 애국가를 들으며 더욱 승화되어 선수들의 두볼로는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었다. 비단 체육인들만이 아니다. 지금 공화국의 인민들은 그 어느때보다도 드높은 애국의 열의를 안고 강성국가건설의 힘찬 진군길에 떨쳐나섰다.

이들의 심장마다에 지닌 크나큰 애국의 큰 힘에 떠받들려 은 나라 곳곳에서 혁신의 불길은 거세차게 타번지고있으며 날마다 기적이 창조되고있다. 《쫓는 힘 노도도 내밀어》라는 애국가의 구절처럼 김정일애국주의의 그 위대한 힘으로 사회주의문명강국을 보란듯이 일떠세우고있다.

수천수만의 가슴마다에 새겨져 있는 이런 숭고한 애국의 마음들에 받들려 조선이 이처럼 강한것이고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의 아침은 반드시 이 땅위에 밝아오게 되는 것이다.

본사기자 김 준 경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영예의 1위를 쟁취한 김정선수가 살고있는 집은 풍치수려한 살롱방에 새로 꾸민 세류인아파트에 있었다.

우리가 그의 집에 들어서자 때마침 김정선수의 아버지, 어머니가 김혁봉선수의 어머니 김영숙선수와 함께 한참 이야기꽃을 피우고있었다.

축하의 인사를 하는 우리에게 김정선수의 아버지 김상희는 요즘 술한 사람들로 부터 축하의 인사를 받느라 눈고들새가 없다고 하면서 직장사람들과 이웃들 그리고 친척, 친우들은 물론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부지런히 전화가 온다고 웃으며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우승을 하고 공화국기발을 휘날린것은 우리 딸인데 인사는 아버지, 어머니가 다 받는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김정이를 낳았을뿐이 아니라 한일이 있습니다. 고마운 우리 제도를 떠나서 오늘의 이 기쁨에 대해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본사기자 김 준 경

명절처럼 흥성이는 집

4.25체육단 김정선수의 집을 찾아서

제능을 찾아 키워주고 은 나라가 다 아는 체육인으로 내세워준것은 은혜로운 사회주의조국의 품이었다.

나라에서는 김정이가 유치원에 다니던 때에 벌써 그의 남다른 재능을 헤아려 소학교 탁구소조와 청소년체육학교에서 탁구를 배우도록 해주었고 4.25체육단의 탁구선수로 키워 국제경기무대에 세워주었다.

언제나 조국의 크나큰 믿음과 부모형제들의 기대를 가슴속깊이 간직하고 훈련으로 낮과 밤을 이어온 김정선수에게 국제탁구련맹 제52차 세계탁구(개별종목)선수권대회를 비롯하여 국제체육무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

이런 그를 나라에서는 인민체육인의 칭호와 함께 사랑의 선물들 가슴가득 안겨주었을뿐만아니라 현대적인 새 아파트의 살림에서 부모들과 함께 살도록 은정깊

보유된 일본팀을 3:1이라는 압도적인 점수차이로 라승하고 세계적인 강팀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섰다. 이번 경기대회에서 공화국의 체육인들은 11개의 금메달을 포함한 36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체육강국으로서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다시 한번 높이 떨치었다.

은 나라의 이르는 뜻마다에 배구장과 축구장, 로라스케트장을 비롯한 체육문화시설들이 훌륭히 갖추어지고 인민아외비상장과 통일거리 운동센터, 미림승마구락부가 최상의 수준에서 일떠서 많은 사람들이 체력을 단련하며 휴식의 한때를 즐겁게 보내고있다.

은 나라의 이르는 뜻마다에 배구장과 축구장, 로라스케트장을 비롯한 체육문화시설들이 훌륭히 갖추어지고 인민아외비상장과 통일거리 운동센터, 미림승마구락부가 최상의 수준에서 일떠서 많은 사람들이 체력을 단련하며 휴식의 한때를 즐겁게 보내고있다.

은 나라의 이르는 뜻마다에 배구장과 축구장, 로라스케트장을 비롯한 체육문화시설들이 훌륭히 갖추어지고 인민아외비상장과 통일거리 운동센터, 미림승마구락부가 최상의 수준에서 일떠서 많은 사람들이 체력을 단련하며 휴식의 한때를 즐겁게 보내고있다.

비약하는 공화국의 체육

성황리에 진행되는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 - 14

해되었다고 그 편지를 보며 힘과 용기를 얻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혁봉선수의 어머니 김영숙선수가 하는 말이였다. 우리가 한참 이야기를 나누고있는데 초인종소리가 울리더니 여러명의 사람들이 또 들어서서 웃었다.

《에로부터 기쁨은 함께 나누면 배로 커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쁨을 함께 나누자고 이렇게 하습

다.》

알고보니 인민반장을 비롯한 이웃들이었다. 그들속에는 이번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우승한 엄윤철선수의 아버지, 어머니와 여자축구감독 김광민의 어머니도 있었다.

《김정이가 어머니, 딸이 이번에도 1등을 했는데 이제 딸을 시집보내야지요.》

모여온 사람들이 웃으며 이렇게 말하자 김정선수의 할머니는 《무슨 소릴. 젊었을 때 조국의 영예를 떨치는 금메달을 더 많이 따야지. 그게 바로 체육인의 본분이 아니겠나.》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말에 모두가 머리를 끄덕였다. 이것이 바로 뜨거운 애국의 마음으로 심장을 불태우는 김정선수와 김혁봉선수를 비롯한 은 나라 체육인들과 그 부모들의 한결같은 심정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뜨거워짐을 금할수 없었다.

본사기자 김 준 경

비약하는 공화국의 체육

성황리에 진행되는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 - 14

해되었다고 그 편지를 보며 힘과 용기를 얻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혁봉선수의 어머니 김영숙선수가 하는 말이였다. 우리가 한참 이야기를 나누고있는데 초인종소리가 울리더니 여러명의 사람들이 또 들어서서 웃었다.

《에로부터 기쁨은 함께 나누면 배로 커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쁨을 함께 나누자고 이렇게 하습

다.》

알고보니 인민반장을 비롯한 이웃들이었다. 그들속에는 이번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우승한 엄윤철선수의 아버지, 어머니와 여자축구감독 김광민의 어머니도 있었다.

《김정이가 어머니, 딸이 이번에도 1등을 했는데 이제 딸을 시집보내야지요.》

모여온 사람들이 웃으며 이렇게 말하자 김정선수의 할머니는 《무슨 소릴. 젊었을 때 조국의 영예를 떨치는 금메달을 더 많이 따야지. 그게 바로 체육인의 본분이 아니겠나.》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말에 모두가 머리를 끄덕였다. 이것이 바로 뜨거운 애국의 마음으로 심장을 불태우는 김정선수와 김혁봉선수를 비롯한 은 나라 체육인들과 그 부모들의 한결같은 심정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뜨거워짐을 금할수 없었다.

본사기자 김 준 경

조선민족의 힘

조선민족의 힘

나를 이번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소식을 TV와 인터넷으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다.

그 과정에 북이 이번 경기대회에서 령기강국,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나라로 우뚝 올라선것을 보면서 환성을 터쳤다. 모두 15개의 금메달이 걸린 령기경기에서 북이 4개의 금메달을 획득했던 것이다.

메달수만 많은 것이 아니다. 북은 령기경기들에서 무려 5개의 세계신기록을 수립하여 세인을 깜짝 놀래켰다.

나는 자기 령도자에 대한 끝없는 신뢰심을 바탕으로 하고있는 정신력이 경기마다들에서 세계신기록을 수립할수 있는 배경이 아닌가고 생각한다.

조선반도에 령기가 처음 소개된 시기는 1928년이라고 한다. 1930년 서상천이 사재를 털어 《중앙체육연구소》를 설립 령기의 문을 열었다. 하지만 《조선총독부》의 압력으로 《조선체육회》가 해산되고 《조선력기련맹》도 1940년 해체되는 수모를 겪었다. 1939년 남수일선수는 제10회 《데이신경기대회》 령기종목에서 일본

선수들을 누르고 세계신기록을 수립하였지만 나라가 없었던탓으로 하여 제 나라 기발도 띄우지 못하였다.

둘이쳐보면 망국의 시절 국제경기에서 우승을 하고도 소리지 자랑할 조국이 없었던 나라 기발을 가슴에 달고 울분을 터뜨리지 않으면 안되었던 우리 민족이었다. 국제경기에서 이기고도 금

메달을 남에게 빼앗기고 지어 린갑까지 당해야 하는것이 나라없는 민족의 비극이고 체육인들의 수난이었다.

1936년 도이쉴란드의 베를린에서 제11차 국제올림픽경기대회가 진행되던 때의 일은 지금도 사람들의 기억속에 잊혀지지 않는다.

나라처럼 마하고 국호마저 잃은 조선청년들은 일본 선수단에 망라되어 축구, 룽상, 권투를 비롯한 여러 종목의 경기에 참가하게 되었다. 일본선수단에 속해서 경기에 나가야 하는 너무나 기막힌 현실에 조선청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반드시 조선민족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보여주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 하나가 된 민족의 더 커진 힘을 만방에 과시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데이다.

재미동포 고진근

당시 손기정이 조선의 열을 안고 달려 마라손경에서 1등을 하였다라는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베를린 하늘가에 휘날린것은 저주로운 일장기였다. 손기정선수의 가슴에도 일장기가 달려 있었다.

그때 겨레의 가슴은 찢어지듯 아팠으니 울림과우승자인 손기정의 심정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그러던 우리 민족이 오늘날은 세계의 창공높이 공화국기발을 높이 휘날리며 존엄과 위력을 한껏 떨치고있다. 공화국은 탁월한 령수를 모서 세계가 공인하는 핵보유국, 인공위성제작 및 발사국의 지위에 올라섰으며 체육강국, 사회주의문명강국의 령마루를 향해 필경노도처럼 내달리고있다.

이번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북과 남은 다같이 높은 경기성과를 이루어 조선민족이 얼마나 슬기롭고 힘이 강한가를 남김없이 시위하였다.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 하나가 된 민족의 더 커진 힘을 만방에 과시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데이다.

재미동포 고진근



성황리에 진행되는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 - 14

오백백과 무르익는 가을이다.

가없이 높이 펼쳐진 맑고 푸른 하늘, 황금빛으로 물드는 산과 벌...

에로부터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 일러왔다.

오즘 미림승마구락부로는 매일같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있다.

정갈하게 꾸러진 토사주로며 불수룩 우정하게 안겨오는 정각과 인공못, 명산의 기암괴석을 그대로 옮겨온듯한 절로산속으로, 특색있는 천막휴식장...

가을을 맞이한 미림승마구락부의 야외풍경이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런상케 하는데 여겨져기에서 승마를 즐기는 사람들의 기쁨에 넘친 모습들을 볼수 있다.

차에서 내리기 바쁘게 환의실로 달려가 옷을 갈아입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말부터 보겠다고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다. 벌써부터 말에 척 올라 주로에 나신 날랜족들도 있다.

눈썹이 아득히 펼쳐진 야

가을철의 승마, 더욱 신난다

의승마훈련장에서는 승마복을 가쁘히 입은 기마수들이 말위에 올라 경쾌하게 질주하고있다. 마치 푸른 하늘을 나는 제비마냥 손살같이 내달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노라하면 함께 말을 타고 광야를 질풍같이 내달리는듯 한 심정을 느끼게 된다.

그런가하면 특색있게 꾸러진 실내승마훈련장에서는 처음 말을 타는 사람들이 승마기술을 익히느라 여념이 없다. 대개 말을 처음 타보는 사람들이어서 유망뿐이지 솜씨가 서툴러 웃음을 자아내기가 일쑤이다. 말에 올라랐지만 말이 움직이지 않아 당황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안장에 오르기 바쁘게 박차부러 가하는 젊은이들도 있다. 그럴 때면 봉사원들은 말안장에 오르는 법과 고삐를 쥐는 법부터 시작하여 승마기술을 하나하나 친절하게 가르친다.

한쪽에서는 키작은 말을 타고 《소년장수》 마냥 제법 솜씨있게 말을 몰아가는 나이 어린 학생들도 보이는데 이 순간을 영원히 남기려는 듯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들이 보인다.

평양의국어대학 학생 김영성은 처음 말에 올라탈 때에는 좀 가슴이 두근두근했는데 몇번 타고나니 이제는 자유롭게 달릴수 있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미림승마구락부에 와서 승마운동을 하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정신적건강이 말끔히 가서지고 담이 커졌뿐 아니라 청춘의 회피와 랑만을 한껏 느끼게 된다고 기쁨에 넘쳐 말하였다.

한편 피로회복원에서는 승마운동을 하고난 사람들이 쌓인 피로를 말끔히 풀고있다. 의자적진안마기에 앉아 안마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찜질방과 사우나 시설이 갖춰져 있어 승마운동 후의 피로를 풀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되고있다.

리은향봉사원은 승마운동을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대담성과 용감성을 키워줄뿐 아니라 신체를 단련하고 긴장에도 매우 좋은 운동이라고 하면서 오

과 함께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때마다 미림승마구락부의 봉사원이 된 긍지와 자부심을 한껏 느끼게 된다고 웃으며 말하였다.

현대적인 대중승마봉사기지로 훌륭하게 꾸러진 미림승마구락부가 어서 오라 사람들을 손저어 부르고있으니 누군들 승마의 세계에 뛰어들고싶지 않랴.

어느덧 하루가 훌쩍 저녁 노을이 깃들었지만 밤을 모르는 미림승마구락부에 인민의 웃음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지고있다.

본사기자 박철남



사랑어린 전용버스

평양제1백화점앞의 주차장에 미림승마구락부로 가는 전용버스정류소가 새로 생겨났다.

여기에는 미림승마구락부를 찾는 사람들이 사소한 불편도 없이 휴식의 한때를 즐겁게 보내게 하려는 인민적시책이 어려있다.

승마장으로 가고오는 사람들을 태우고 전용버스는 위엄없이 달린다.

홍겨운 노래소리가 울리는 버스에서 울려 퍼지는 승마에 들뜬 사람들의 즐거운 기쁨을 느낄수 있다. 서로의 말타기경험담이 오가는 사이에 저도 모르게 리지는 웃음소리...

인민사랑의 전용버스가 그들모두를 구원친구로 만든것이다.

미림승마구락부의 이모저모

미림승마구락부에 가면 말을 타고 사진을 찍는 사람들의 모습을 자주 볼수 있다. 그중에서 사람들의 눈길을 특별히 끄는것은 고구려무사복을 입고 사진찍는 사람들의 랑만에 넘친 모습이다. 미림승마구락부의 봉사소에서는 어른용, 아이용의 남, 녀무사복은 물론 승마들이 사용하던 여러가지 칼과 활, 방패 등의 무기까지도 봉사해주고있다.

첫 찬 사람들이 말위에 오르면 마치 그들모두가 먼 옛날 전장에서 외적들을 무찌르던 《무사》, 《소년장수》가 된듯 실다.

《무사》가 된 기쁨을 안고 저저마다 기념사진을 찍는 사람들, 그들속에는 뜻깊은 결혼식날 이곳에 찾아와 감동을 입고 사진기앞에서 《무사》역을 수행하는 신랑, 신부들도 있다.

승마운동으로 쌓인 피로를 가져주며

드넓은 승마구락부에서 사람들이 말을 타고 쟁쟁 달리는 쾌감도 좋지만 피로회복원에서 승마운동으로 쌓인 피로를 가시는것도 하나의 즐거움이다.

피로회복원에서는 사람들의 피로를 푸는데 필요한 수증안마, 전신안마, 국부안마, 피로회복기재 등을 봉사해주고있다. 미림승마구락부에서 승마운동을 마치고 하교한 사람들은 피로회복원에 들려 여러가지 안마봉사도 받고 운운에 가지가지 충격과 자극을 주는 피로회복기재를 리용하면서 온갖 정신육체적피로를 풀게 된다. 얼마전에는 피로회복원에 새로운 유희오락기재들도 갖추어져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 유희하게 해주고있다.

본사기자 김철호

절승경개에 인민의 기쁨 넘친다

* 박연폭포를 찾아서 *

공화국을 찾는 해외동포들은 개성에 오면 누구나 다 박연폭포에 가보고싶어한다. 개성시의 여러 력사유적을 돌아본 우리 박연폭포에 도착한것은 정오가 지나서였다. 박연리소재지로부터 박연폭포를 따라 한참동안 올라가노라면 박연-평동사명승지구역에 들어서게 되는데 바로 여기에 박연폭포가 있었다.

예로부터 우리 나라 3대명폭의 하나로, 《송도3경》의 하나로 유명한 박연폭포!

력사도 길거니와 경치도 뛰어난 박연폭포를 찾아 떠난 우리가 성기산과 천마산이 손을 맞잡듯 마주하고선 화강암절벽을 따라가노라니 드디어 장쾌한 물줄기가 절벽우에서 떨어지고있었다. 20리의 골짜기물이 합쳐져 힘찬 물줄기는 박연폭포의 장쾌한 울림에 가슴이 순간에 열리는것만 같았다.

천지를 진감하는 물소리가 귀전에 들러울듯싶고 손을 뻗치면 천갈래, 만갈래로 부서지는 은수슬이 손에 잡힐듯싶은 장쾌한 박연폭포의 절경에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찬성을 터치었다.

이곳 명승지관리소의 윤설향강사는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폭포의 경치를 두고 감탄을 금치 못한다고 말하였다.

폭포옆으로 한동안 올라가노라니 폭포우에 바가지모양으로 생긴 박연이라는 기묘한 한이 있었고 그 가운데에 여러 사람이 앉을만 한 크기의 선바위가 있었다.

박연이라는 이름은 옛날 박진사라는 사람이 통소를 불었는데 그 소리에 반한 용왕

의 딸이 그와 함께 못속에 들어가 살았다는 전설에서 유래된것이었다. 예로부터 박연폭포는 장쾌한 폭포풍경과 함께 주변의 고적들, 흥미있는 전설들로 하여 명승으로 이름높았다.

그러나 근로하는 인민이 천대와 멸시의 대상으로 되고있던 지난날에는 돈많은 사람들의 유희지토만 되어있었다.

윤설향강사는 폭포밑의 고모담이라는 못에 솟아있는 롱바위에 고리시기에 제능있는 시인으로, 명창으로, 명필로 알려진 황진이가 쓴 시가 새겨져있다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연제인가 박연폭포를 찾으니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롱바위에 오르시여 황진이 가 쓴 시를 보아주시었다. 력사학자들도 미처 읽지 못한 울림에 가슴이 순간에 열리는것만 같았다.

천지를 진감하는 물소리가 귀전에 들러울듯싶고 손을 뻗치면 천갈래, 만갈래로 부서지는 은수슬이 손에 잡힐듯싶은 장쾌한 박연폭포의 절경에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찬성을 터치었다.

이곳 명승지관리소의 윤설향강사는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폭포의 경치를 두고 감탄을 금치 못한다고 말하였다.

폭포옆으로 한동안 올라가노라니 폭포우에 바가지모양으로 생긴 박연이라는 기묘한 한이 있었고 그 가운데에 여러 사람이 앉을만 한 크기의 선바위가 있었다.

박연이라는 이름은 옛날 박진사라는 사람이 통소를 불었는데 그 소리에 반한 용왕

연폭포를 바라보았다. 비가 조금만 와도 골안에 물이 사품쳐호를 정도이고 폭포주변에 물안개가 피여 무지개가 선다니 《물소리 골안에 온통 우리가 치고/물방울 하늘에 구슬이 흩어지네》라는 시구절이 태어날만도 하였다.

박연폭포 오른쪽에는 안개 바다우에 떠가는 때갈대고 하여 범사정이라고 불리우는 정각이 있었는데 그우에 올라 폭포를 부감하는 몇 또한 이를레 없었다. 오랜 세월 인민이라는 두 글자와 멀리 떨어져 랑반사대부들의 취흥을 돌구어주던 명승이 오늘날은 명실공히 인민의 명승으로 빛을 뿌리고있음을 노래하며 범사정도 더욱 고색이 창연하게 서있는듯싶었다.

손풍금반주에 맞추어 신나게 노래부르는 대학생들, 덩실덩실 춤을 추는 로인들, 고모담의 맑은 물에 발을 담그고 물보라를 일으키며 기뻐하는 휴양생들...

박연폭포지구는 박연폭포와 범사정뿐 아니라 대홍산상과 성의 복문, 관음사, 대홍사 등이 자리잡고있었고 기암, 마담, 구암으로 불리우는 3개의 담소도 있었다. 마담폭포, 대홍폭포, 계절폭포 등 제나름의 자태를 뽐내는 폭포들도 있었다.

주체63(1974)년 7월 이곳에 오셨던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도 옛날 랑반들은 아찔한 절벽에 자기 이름이나 새겼지만 황진이는 후세에 길이 전해질 훌륭한 시를 새겼다고 하시면서 초야에 물혈만한 그의 생을 력사의 갈피에 뚜렷이 새겨주시었다. 정녕 민족의 력사를 귀중히 여기시는 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만 꽃필수 있는 또 하나의 뜻깊은 전설이었다.

우리는 롱바위우에 올라 박

본사기자 최태성



아름다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제자를 등에 업고 다닌 녀교원

공화국에서 내가 만난 아름다운 사람들속에는 다리를 쓰지 못하는 한 소녀를 등에 업고 학교를 오가며 공부시키고 그거은 사랑과 정으로 그를 일떠세워 끝내는 대지를 활보하게 만든 한 녀교원도 있었다.

처음 그 녀교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믿어지지 않았다. 아니, 믿을 수가 없었다. 하여 나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 함옥숙녀성이 교편을 잡고있는 평양제1산소학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평양시교외의 농촌인 제산리는 한쪽의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그러나 함옥숙녀성을 만나고나서 나는 자연의 아름다움에는 비길수 없는 인간의 아름다움을 느꼈다. 그는 공화국의 어디서나 볼수 있는 소박한 가정부인이였고 평범한 녀교원이였다.

그의 이야기는 5년전의 어느 학부형들을 만나러 제산마을에 갔다가 우연히 한 소녀를 보게 된 때로부터 시작된다. 몇살인가고 묻자 대답은 손가락 일곱개를 때 박인 소녀, 학교에 가고싶지 않은가고 물었을 때 고개를 수그리던 소녀의 이름은 박우인이였다.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다리를 못쓰는 딸을 측은한 눈길로 바라보며 눈물만 흘린 우인이의 어머니... 그날 저녁 가냘픈 모습으로 안겨오던 우인이와 피로워하던 그 어머니의 모습이 함

옥숙녀성의 가슴을 파고들며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였다.

함옥숙녀성은 이틀날 새벽 소녀의 집을 다시 찾았다. 놀라워하는 우인이와 부모들에게 긴 설명대신 그는 등을 돌려버렸다.

《어서 업혀라. 오늘부터 학교에 가자.》

순간 함옥숙녀성의 목뒤에 떨어지는 뜨거운 물방울들, 소녀의 눈물이었던가, 어머니의 눈물이었던가.

그날부터였다. 제산마을에서 소학교로 뻗은 소로길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와 같이 불구소녀를 업은 한 녀교원의 발자국이 새겨지기 시작하였다.

함옥숙녀성은 우인이에게 연필을 쥐는 법으로부터 우인이가 글읽기와 셈세기 등을 가르쳐주었다. 오가는 길의 나무 한그루, 농작물 한포기도 우인이를 위한 교편물이였다. 그 길에서는 이런 대화도 오갔다.

《선생님, 제가 무겁지 않습니까?》

《그래, 편 무거워졌구나.》

《선생님이 힘드시겠는 데...》

《선생님은 우인이가 크는 게 더 기쁘단다.》

마을사람들은 매일 소로길을 오가는 녀교원과 소녀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찍었다. 우인이의 성격은 날이 갈수록 높아졌다. 그럴수록 녀교원의 마음은 무거워만났다.

《선생님, 산에는 정말 나무와 열매들이 많습니까?》

《선생님, 수영을 하면 정말 몸매가 고와집니까?》

언제인가 우인이를 업고 만경대에 갔을 때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그날 우인이의 얼굴은 밝지 못하였다.

《전 오늘 제 손으로 꽃다발을 마련하지 못하였습니까. 애기처럼 그냥 선생님등에 업혀서...》

순간 가슴속에 갈마드는 생각, 업고 다니며 글이나 가르치고 수학이나 배우주는 것으로 만족했던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였다.

(우인이를 업고다니는 일과는 더 바쁘게 흘러갔다. 그의 손에는 의학적적들이 쥐여졌고 수업휴식시간, 저녁시간마다 수기치료를 하느라 시간이 언제 가는지 몰랐다.

우인이를 업고 여러 병원들을 찾아다니며 함옥숙녀성이 흘린 땀방울은 그 열마였을가. 우인이의 다리에서는 점차 변화가 일어났다. 그럴수록 함옥숙녀성은 더욱 열

심히 노력했다. 어느날 저녁 부엌에서 웬 단지를 들었다 놓았다 하는 그를 보고 남편이 왜 오리려 가고 몰랐다.

한참을 갑자르다가 함옥숙녀성이 하는 말. 《당신 때문에 마련했던 보약인데 우인에게 쓰고싶어서...》

《미안하게 뭐 있소? 나 한테는 영에군인이라고 나라에서 주는 보약이면 충분하오. 오히려 당신을 힐끗 들지 못하는 내가 미안하구만.》

함옥숙녀성에게서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가 영에군인의 안해이면서 다리를 못쓰는 소녀를 등에 업고 수년 세월을 다녔단 말인가.

아름다운 녀성이여, 아름다운 인간이여! 함옥숙녀성의 이야기가 듣는 내내 나의 가슴속에서는 이러한 찬란박에 나가지 않았다.

그길로 보약단지를 안고 우인이의 집으로 달려가며 함옥숙녀성은 눈물을 쏟았다고 한다. 늘 자기를 도와주는 학교의 선생님들과 마을사람들, 어느 생전에 가나 친절히 반겨주며 돌봐주는 의료인들, 우인이를 업고 배스에 오르려 저지마다 자리를 내주던 길손들... 바로 이런 아름다운 사람들속에, 아름다운 사회에 사는 행복으로 함옥숙녀성은 우인이를

하루도 빠짐이 없이 업고 다녔다.

어느날, 어느때와 마찬가지로 우인네 집으로 향하던 함옥숙녀성은 아찔한기울기에 걸음을 멈추었다.

산중턱에서 누군가 자기를 향해 손을 흔들고있었다. 분명히 우인이였다. 소녀는 꽃속에 묻혀 웃고있었다. 함옥숙녀성은 몇분이나 눈을 비비고 또 비비었다.

《우인아, 너 정말 일어섰니? 너 혼자서 산에 올랐어?》

《예, 선생님. 나 혼자서 여기까지 올랐습니다. 선생님께 드리려고 이렇게 꽃다발을 엮었습니다.》

녀교원은 너무 기뻐 한달음에 산으로 달려올라갔다. 그리고는 역세계 대지를 질고선 우인이를 와락 그러안았다.

얼마후 함옥숙녀성은 우인이와 함께 만경대를 찾았다. 우인이가 산에 올라 계 손으로 꺾은 꽃으로 엮은 꽃다발을 안고... 우인이를 바라보는 함옥숙녀성의 얼굴에는 미소가 어려웠다.

이 아름다운 인간, 아름다운 교육자만이 지을수 있는 아름다운 미소였다.

다리를 못쓰는 한 소녀를 스스로 말아 수년세월 업고 다니며 공부시키고 그를 일떠세워 대지를 활보하게 한 녀교원 함옥숙, 이 이야기도 공화국에 만발한 미담들중의 하나일뿐이다.

재미동포 김경리

인권이 최상의 경지에서 보장되는 조선

나이제리아단체 인터넷에 글 게재

나라가 바로 조선인것이다. 조선에서는 실업자를 찾아볼수 없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제가 실시되고있으며 누구나 학비라는 말조차 모르고 배움의 권리를 마음껏 향유하고있다.

아이들이 있는 곳이라면 심심산골이든 자그마한 섬이든 학교가 일떠서 배움의 갈소리가 울려 퍼진다.

대학과 전문학교들에서는 학생들이 장학금까지 받으며 공부한다.

조선에서는 누구나 무상치료제의 혜택을 누리고있다. 인민들의 살림집건설에 국가가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최근년간 평양에 훌륭한 일떠선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창천거리, 은화과 학자거리 등에는 평범한 교원, 연구사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돈 한푼 내지 않고 입학하였다.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과 어린이들, 장애자들의 생활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

살펴주고있다.

녀성들은 남성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있을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혜택을 받고있다.

조선에서 인권이 훌륭히 보장되고있는것은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고있기 때문이다.

주체사상은 사람을 세계에서 가장 힘있고 귀중한 존재로 내세우며 모든것이 사람을 위하여 북부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향도되는 조선에서 인권이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되고있는것은 지극히 당연한것이다.

본사기자

《활짝 핀 화원마냥 화려하게 안겨오는 조선옷》, 《우아하면서도 조선민족의 특색이 뚜렷하게 살아나는 옷》, 《옷 색깔과 형태, 문양으로 민족적정신을 풍기는 조선옷이 제일이다》...

꽃피어나는 우리 생활과 민족옷

◆ 동해 조선옷점을 찾아서 ◆

화려한 조선옷을 입은 여성들을 보며 외국인들은 하나같이 선녀같다고 경탄을 금치 못해 한다. 그래서 명절날, 기념날이면 조선옷으로 단장을 하고 나서는 것이 고풍하여 민족에게 있어서 생활의 한부분으로 되고 있다.

얼마전 우리가 강원도 원산시의 풍치수려한 해안가에 위치한 동해조선옷점을 찾았을 때였다. 지난 9월에 진행된 제12차 전국조선옷전시회에서 튜브를 쟁취한 것을 비롯하여 민족옷을 잘 만들어 온 나라에 소문이 자자한 이곳 옷점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 오고 있었다. 갖가지 장식기법들로 훌륭하게 제작한 결혼식옷과 명절옷들이 가득한 진열대며 화려하고 우아한 민족옷들을 입어보며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여성들의 밝은 모습...

다.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내딛는다는 처녀들이며 결혼식날에 입을 첫날옷을 맡기러 왔다는 여성들 그런가 하면 반희장저고리를 찾아 입어보는 중년부인들과 60살을 넘기었다는 할머니의 모습도 보였다.

《웃이 날개라더니 조선치마저고리를 입으니 더욱 환해보이는구나.》
《이렇게 꼭 맞는 조선옷을 입으니 한결 젊어진 것 같애요. 정말 이 조선옷점은 소문이 날만 해요.》
《전에는 머느리의 치마저고리를 했는데 시집가는 딸에게 치마저고리도 여기서 만들어주어야 할 것 같구만.》...



아름다운 화원에는 그 화원을 가꾸는 원예사가 있듯이 오늘 우리 여성들이 즐겨입는 조선치마저고리에도 그것을 더 훌륭히 만들어 민족의 넉과 전통을 빛내어가기 위해 남모르게 바쳐가는 사람들의 애국의 마음이 깃들여 있다.

그들을 바라보며 리향옥 책임자는 자기들의 손으로 지은 치마저고리를 입고 거리를 밝게 단장하며 다니는 여성들을 볼 때면 조선옷을 만드는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곤 한다고 말해주었다.

한번의 조선옷을 만들어도 전통적인 조선옷을 현대적미감에 맞게 더욱 세련시켜나가기 위해 온갖 성의를 다하고 있다는 그의 이야기를 들던 우리의 눈길은 올해에 진행된 전국조선옷전시회에서 특등으로 평가된 치마저고리들에 쏠려갔다.

간결하면서도 밝고 선명한 느낌을 주는 독특한 색배합과 사연깊은 철명의 철쭉꽃과 사과꽃으로 형성한 문양

들, 세련된 가공솜씨와 나무랄데 없는 가공기술로 특색있게 제작한 이 치마저고리들에 대한 손님들의 인기가 각별하다고 한다.

4각으로 된 관촉사들등은 정물과 동물이 어울려서 그려진 관촉사들등도 있다. 평양민속공원에 있는 화강석으로 된 관촉사들등은 높이가 4.5m로서 받침단과 기둥, 불집과 등머리로 되어 있다.

민족의 자랑-평양민속공원을 찾아서 관촉사들등

관촉사들등

평양민속공원의 고려시기 유적들중에는 충청남도 문산시의 관촉사에 있는 돌등을 실물과 똑같이 만들어놓은 관촉사들등도 있다. 평양민속공원에 있는 화강석으로 된 관촉사들등은 높이가 4.5m로서 받침단과 기둥, 불집과 등머리로 되어 있다.

관촉사들등

관촉사들등은 정물과 동물이 어울려서 그려진 관촉사들등도 있다. 평양민속공원에 있는 화강석으로 된 관촉사들등은 높이가 4.5m로서 받침단과 기둥, 불집과 등머리로 되어 있다.

관촉사들등

관촉사들등은 정물과 동물이 어울려서 그려진 관촉사들등도 있다. 평양민속공원에 있는 화강석으로 된 관촉사들등은 높이가 4.5m로서 받침단과 기둥, 불집과 등머리로 되어 있다.



본사기자 고영숙

에로부터 조선민족은 건강을 음식물의 간을 맞추는 데 세심하게 고추장은 입맛을 당기게 하는 독특한 조미료로 리용하여왔다.

간장, 된장, 고추장은 쓰이는 재료나 만드는 방법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지만 달걀이 콩을 기본원료로 하고 있고 콩을 삶아가지고 적당하게 띄워서 만든다는 점에서 동일한 콩식품이라고 할 수 있다.

고구려무덤벽화의 변하지 않는 채색

고구려무덤벽화는 고구려시기 사람들의 생활과 풍습, 그들의 민족적문화와 예술적 재능을 훌륭히 반영하고 있는 우리 민족의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고구려무덤벽화는 고구려시기 사람들의 생활과 풍습, 그들의 민족적문화와 예술적 재능을 훌륭히 반영하고 있는 우리 민족의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관촉사들등은 정물과 동물이 어울려서 그려진 관촉사들등도 있다. 평양민속공원에 있는 화강석으로 된 관촉사들등은 높이가 4.5m로서 받침단과 기둥, 불집과 등머리로 되어 있다.

관촉사들등은 정물과 동물이 어울려서 그려진 관촉사들등도 있다. 평양민속공원에 있는 화강석으로 된 관촉사들등은 높이가 4.5m로서 받침단과 기둥, 불집과 등머리로 되어 있다.

관촉사들등은 정물과 동물이 어울려서 그려진 관촉사들등도 있다. 평양민속공원에 있는 화강석으로 된 관촉사들등은 높이가 4.5m로서 받침단과 기둥, 불집과 등머리로 되어 있다.

장미의 향기

3월의 향기

장미의 향기

장미의 향기

장미의 향기

장미의 향기

장미의 향기

장미의 향기

원시사회시기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한 우리 선조들은 소나 말 등 짐승들의 거름먹이로 콩을 삶아 먹어왔는데 소나 말이 땅에 떨어져 썩어가는 콩을 유별하게 맛있게 먹는데 주목하게 되어 삶은 콩을 일부러 띄워서 장을 만들게 시작하는 것이 장의 유래라고 한다.

간장과 된장은 매 집에서 제각기 담그어먹게 됨으로써 그 방법과 맛이 또한 집마다 다 독특했다고 하며 장을 얼마나 맛있게 담그는가에 따라 그 집의 풍류가 논의되었다고 한다.

이러하여 간장, 된장, 고추장은 조선민족음식 가운데서도 가장 기초적인 식품으로 되었으며 조선 고유의 민족음식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러하여 간장, 된장, 고추장은 조선민족음식 가운데서도 가장 기초적인 식품으로 되었으며 조선 고유의 민족음식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러하여 간장, 된장, 고추장은 조선민족음식 가운데서도 가장 기초적인 식품으로 되었으며 조선 고유의 민족음식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러하여 간장, 된장, 고추장은 조선민족음식 가운데서도 가장 기초적인 식품으로 되었으며 조선 고유의 민족음식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러하여 간장, 된장, 고추장은 조선민족음식 가운데서도 가장 기초적인 식품으로 되었으며 조선 고유의 민족음식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러하여 간장, 된장, 고추장은 조선민족음식 가운데서도 가장 기초적인 식품으로 되었으며 조선 고유의 민족음식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사화

양호당집과 개성편수 (3)

글 정의선, 그림 김윤일

사랑방에 들어온 변숙은 양호당앞에 큰절을 하고 편히 앉았다. 《그래 지금 어디에 가게 시오? 두문동에 들어갔다는 말을 들었는데...》

《두문동에 들어갔다가 채귀하, 박심 등 일파사람이 벽란도 맞은편 벽천에 가 은거하고있소이다.》 《그러니 살아가기 힘들겠소?》

《역적놈들을 잡아서 몽땅 목 매다는 날이 언제나 올가오? 난 우리 아버지하고 큰오라버니의 원수를 못 갚고있으니 가슴이 막 터지는것만 같아오.》

《그건 나도 같다. 내 들기에는 개경의 어느 집에서 리성계의 목을 잘라 삶아 먹는다는 뜻으로 떡국을 해먹는다고 하더라.》

《그런데, 우리 누이동생 변씨가 빛은 편수라고 말해주지. 너의 가혹한 마음도 설명해주고...》

《그런데, 우리 누이동생 변씨가 빛은 편수라고 말해주지. 너의 가혹한 마음도 설명해주고...》

《그런데, 우리 누이동생 변씨가 빛은 편수라고 말해주지. 너의 가혹한 마음도 설명해주고...》

《그런데, 우리 누이동생 변씨가 빛은 편수라고 말해주지. 너의 가혹한 마음도 설명해주고...》



본사기자